

日本 工業所有權制度 90周年記念 懸賞論文要約(2)

여기에 소개하는 논문은 日本이 工業所有權制度를 創設한 지 올해 90周年을 맞아 이를 日本의 發明協會가 記念하기 위해서 日本國民을 상대로 모집한 論文 가운데 入選作을 要約한 것이다. 入選作은 準1席 3件, 佳作 3件, 選外佳作 4件이고 그중에서 準1席(準特選) 1件만을 記載한다.

——特許의 今日的 意味——

<植木英吉>

筆者는 어느날 안내된 金屬加工 工場에서 經營자의 特許發明意慾, 技術開發 및 經營戰略에 있어 쉽지않은 특허마인드와 不況下일수록 特許技術의 인פק에 企業生命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자세에 강한 인상을 받아 이같은 일개 私企業의 자세로부터 오늘날 日本이 놓여 있는 국제적 환경과의 사이에 많은 共通事項이 발견됨을 直感했다.

그것은 內的으로는 시비어한 노동사정, 사회환경이며, 外的으로는 오일쇼크 등의 經濟變動, 격화하는 자유경쟁과 제한적 경쟁의 交錯, 途上國의 追從, 日本과 선진 각국과의 技術格差, 外資攻勢 등이며 그 타개책은 新規技術開發, 商品附加價値의 향상, 합리화여는 기술발명이다.

이같은 격동기에 있어 工業所有權制度는 先行的, 規範的인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는 縱行性을 갖지 않으면 안되며 特許制度가 轉機에 선다는 오늘, 이 과제를 해결하도록 원점부터 今日的 是正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1. 特許의 獨占

本章에서는 獨占權을 標榜하는 특허와 獨禁法과의 이율배반적 공존의 현상을 記述하며 調和의 해결의 수단에 대해서 摸索한다. 특허와 독점에 대하여 原點의 見解로서 特許制度에 대한 반론 및 찬성론의 典型으로서의 아담 스미드와 존 스튜어트 밀의 原初의 意見을 對比, 兩論이 論議의 原型으로 살아있는 점에 언급했다.

前者의 취지는 特許의 獨占權이 他人의 발명에 대한 抑止力을 強調함에 대해 後者는 견해와 특허제도의 功績으로서의 國家利益, 人間생활의 향상을 역설한다. 오늘날 後者의 견해는 대체로 시인되고 있으나, 더욱 企業은 특허발명을 經濟活動面에 化體시켜 콩그르마리제이션化를 指向하여 高度寡占 또는 독점상태는 세계적으로 많은 예를 본다.

특허와 獨禁과의 사이에는 秩序있는 調和가 維持되어야 한다. 질서있는 조화는 公益의 配慮, 경쟁의 자유와 기회의 均衡, 경제적 進步阻害要因의 排除에서 얻어야 한다.

2. 特許의 霸權

企業의 특허의 발명에 의한 巨大化는 獨禁法, 反트리스트法 등의 制約을 받아 異業種間 콩그르마리제이션化 경향을 낳고 그 규격도 그로발로 발달한다. 이는 技術經濟에 있어의 霸權主義에 불과하다. 霸權思潮에 대한 反論은 途上國, 非同盟國 등의 最大公約數의 소리로 받아진다.

獨占의 特許權은 자유경쟁의 과정에서 그 行使手段의 여하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霸者에 의한 支配狀態조차 불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나 반면, 發明의 라이프사이클은 급속히 短縮化傾向에 있고 특정의 특허 발명의 권리가 長期에 와하여 독점을 마음대로 하여 패자를 위해서 行使되는 것은 적어지고 있다.

특허권에 의한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의 存續期間의 단축이 제창된다. 그것은 특허발명의 라이프사이클 단축화의 今日的 傾向에서 一考의 價値가 있다고 할만하다.

3. 特許의 그로바리제이션과 南北問題

오늘의 세계의 公업소유권제도는 PCT 및 TRT의 提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廣域 내지 世界特許制度化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途上國의 입장과 特許權은 선진국의 특허마인드와 미묘하게 相衡되어 있어 이 때문에 WIPO(世界知的 所有權保護機構) 및 UNCTAD(유엔 貿易開發會議)에 의한 途上國의 勸誘를 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日本은 이같은 南北問題의 調和의 解決의 열쇠를 쥐는 위치에 있다고 할만하다.